

'국회의 꽃' 3선(選) 이상 도전 광주·전남 출마자 중 8명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출마자 중 3선(選) 이상에 도전장을 낸 후보가 8명에 달해 과연 몇 명이 중진 의원 반열에 오를 지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육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각각 6선 고지를 노리고 있다.

22일 4·10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 지역 후보자 72명 가운데 3선 이상에 도전하는 후보는 모두 8명(11.1%)으로 집계됐다.

연론인 출신으로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표는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거치며 제16, 17, 18, 19,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에 새미래 당수로 6선에 도전장을 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인천 계양구에 출마해 48%의 득표율로 초선에 성공한 뒤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거치면서 17, 18, 20, 21대까지 5선에 성공했고, 이번에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 갑에서 6선 사냥에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육중 출마는 박주선 전 국회의부의장(2004, 17대 총선), 강운태 전 광주시장(2016년, 20대 총선)에 이어 송 대표가 3번째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천정배 전 의원은 7선에 도전장을 냈으나 고배를 마셨다.

신당 이낙연·송영길 대표 나란히 6선 고지 도전 '정치 9단' 박지원 5선, 이개호·이정현 4선 노려 서삼석·신정훈·이윤석 3선 타이틀에 도전장 내

전국적으로 생존정치인 중 최다선은 서정원 전 한나라당 대표로 8선을 역임했다. 광주·전남 5선 도전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유일하다. '정치 9단',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전 원장은 해남·완도·진도에 출마, 국민의힘 광복군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이개호 의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은 각각 담양·함평·영광·장성,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에서 4선에 도전한다. 4선에 성공하면 국회의부의장과 당지도부 내 중책을 맡을 수 있다.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3선 도전자는 총 3명으로,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고려대 학생운동을 이끈 '586'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나란히 결선투표 끝에 본선에 올랐고, 무소속 이윤석 전 의원도 목포에서 3선 타이틀에 도전한다.

재선 도전자는 모두 4명으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광산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서구 을에 각각 출마했고, 전남에선 목포 김원익이



광주·전남 3선 이상 도전 후보들. 왼쪽 왼쪽부터 이낙연, 송영길, 박지원, 이개호 후보, 아랫줄 왼쪽부터 이정현, 서삼석, 신정훈, 이윤석 후보.

여수 갑 주철현(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번째 당선을 노리고 있다.

서선욱 기자

광주·전남 '본선행' 현역의원 7명 생환 여부 '축각'

광주 민형배·강은미, 전남 이개호·서삼석·신정훈·김원익·주철현 정치신인, 보수정당 당대표 출신, 무소속 후보 등과 한 판 승부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지역 후보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 19명 중 7명이 지역구 수성에 나서거나 비례의원을 마치고 첫 지역구 도전에 나서 생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광주·전남에서는 각 36명씩, 총 7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들 가운데 현역 의원은 단 7명으로, 6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 1명은 녹색정의당 소속 비례의원(강은미, 광주 서구 을)이다.

민주당 소속은 광주에서는 광산을 민형배 의원이 유일하고, 전남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신정훈(나주·화순, 이상 3선 도전) 의원, 초선 김원익(목포), 주철현(여수 갑) 의원 등 5명이다.

'현역 교체론'이 거세게 일면서 광주에서는 지역구 의원 8명 중 7명, 전남에서는 10명 중 5명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또는 신당 참여 후 수도권 출마로 현역 본선행은 30% 중반에 그쳤다.

민주당과 민생당으로 분화돼 당 대 당 경쟁 구도가 형성됐던 21대 총선 당시 현역 도전율, 60%대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호남 맹주 격인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의 경우 오락가락한 공천 심사와 재심, 최귀회 반복, 고소·고발 등으로 역대급 진통을 겪고 본선에 올라 타당 후보들과

진검 승부를 앞두고 있다.

특히, 광산을 민형배 의원은 5선 국회의원에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의 숙명적인 대결을 앞두고 있어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진통 끝에 단수공천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은 경선에서 배제된 뒤 탈당한 무소속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예측불허의 격돌이 예상돼 생환 여부까지 전남 총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일한 비민주당 현역 의원인 강은미 의원도 민주당 친이재명계 양부남 후보와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기독교당 후보와의 치열한 6파전을 뚫고 지역구 초선의 꿈을 이룰 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광주·전남 총선 물갈이 폭은 16대 61%, 17대 66%, 18대 52%, 19대 35%, 20대 47%에 달했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국민의당 '녹색 돌풍'으로 18명의 지역구 의원 중 15명, 비율로는 83%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이슬비 기자

46년만에 광주·전남 '유리천장' 깨지나...여성 후보 총 9명 도전

전남 1978년 김윤덕 의원 이후 전무

광주 6명·전남 3명...남성후보와 대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총 9명의 여성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전남지역은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되면 지난 1978년 이후 46년만이다.

22일 4·10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는 광주 6명, 전남 3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전체 36명 중 여성 후보가 6명으로 16.7%를 차지했으며 21대 총선 5명에 비해 1명 늘었다.

동구남구을의 기호 8번 진보당의 김미화(47) 후보와 서구을의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강은미(53) 후보, 같은 지역구 기호 8번 진보당 김해정(46) 후보다.

북구을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55) 후보와 2번 국민의힘 양종아

(49) 후보가 남성 후보 3명과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광산구을에 출마한 기호 7번 진보당의 전주연(49) 후보는 남성 후보 4명과 대결한다.

전남은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3명(8.3%)이 출사표를 던졌다. 남성 후보는 33명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 선거구에서 기호 1번 민주당 권향엽(56) 후보와 기호 7번 진보당 유현주(53)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경합한다.

여수시갑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박정숙(57) 후보와 민주당 주철현(65) 후보 2명이 출마해 남녀 성별 대결이 펼쳐진다.

특히 전남은 3명의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김 전 의원은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9대와 10대 전남 나주군·광산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광주는 16대 김경천 의원(민주당·광주 동구), 제19대 박해자 의원(민주통합당·광주 서구갑), 제19대~20대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 21대 양향자 의원(민주당·광주 서구을)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오유나 기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